

2016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목 차

조사목적 및 조사설계

I. 조사 배경 및 목적	7
II. 조사 설계	8
1. 조사 대상 및 사례수	8
2. 조사 도구 및 조사 내용	8
3. 설문내용 및 문항의 신뢰도	10
4. 조사의 진행과 자료의 분석	10

조사결과 분석

I. 조사결과	
1. 응답자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	15
2. 욕구조사 결과	24
1) 개인적인 문제인식과 도움요청 방법	24
2) 복지관 이용 관련사항	36
3) 여가 및 사회참여	50
4) 건의사항	56

결론

III. 요약 및 제언	
1. 조사결과 요약	61
1)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61
2) 욕구조사결과	64
2. 제언	71

부록 2016년 남동구 지역장애인욕구조사 설문지	73
----------------------------------	----

[표목차]

표1 설문지의 구성	9
표2 설문지의 문항 신뢰도	10
표3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11
표4 응답자 성별	15
표5 응답자의 연령대	16
표6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16
표7 응답자의 장애유형	17
표8 응답자의 장애등급	18
표9 장애유형별 등급별 분포	18
표10 응답자의 종교	19
표11 경제상태	19
표12 결혼상태	20
표13 학교 또는 직장유무	20
표14 취업자의 월평균소득	21
표15 주거형태	21
표16 가족구성 형태	22
표17 응답자의 거주지역	22
표18 거주지역의 생활편리성	23
표19 남동구거주기간	23
표20 생활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24
표21 경제적 문제	25
표22 취업의 어려움	26
표23 건강 및 의료적인 어려움	27
표24 교육 및 학습의 어려움	28
표25 가족을 돌보는 어려움	29
표26 심리 사회적 어려움	30
표27 가족관계의 어려움	31

표28	일상생활 및 활동의 어려움	32
표29	문화생활의 어려움	33
표30	대인관계의 어려움	34
표31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35
표32	복지관 이용여부	36
표33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37
표34	복지관 정보습득 경로	37
표35	복지관 이용횟수	38
표36	복지관 이용기간	38
표37	복지관 이용의 주된 이유	39
표38	항목별 시설이용 만족도 평균	40
표39	복지관 내 시설 만족도	41
표40	복지관 프로그램 만족도	42
표41	복지관 사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43
표42	복지관 긍정적 이미지 수준	44
표43	지속적인 프로그램 이용 의향	45
표44	복지관 이용시 불편 정도	46
표45	복지관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1순위	47
표46	복지관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2순위	48
표47	복지관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3순위	49
표48	외출 빈도	50
표49	외출시 이동 수단	51
표50	평소 주로 하는 여가활동	52
표51	여가활동 만족도	52
표52	외출시 가장 큰 어려움	53
표53	필요한 여가활동 지원서비스 1순위	54
표54	필요한 여가활동 지원서비스 2순위	55
표55	여가프로그램 참여의향 여부	55
표56	기타의견 및 욕구 관련사항	56

2016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조사목적 및 조사설계

I. 조사 배경 및 목적

본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고 있다. 프로그램 별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상반기 중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용인 만족도 및 욕구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시설 별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설과 관련한 만족도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추가로 프로그램별 수시로 상담을 통해 개선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대표자 간담회를 연2회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대상자 의견의 사각지역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회 설문조사를 통해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시설 및 프로그램 환경 개선,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방향 모색 등 조사내용을 근거로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욕구조사를 통하여 지역장애인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향후 정책방향제시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2) 남동구 지역 욕구조사를 통하여 이용인의 욕구를 알아보고, 차기년도 및 중·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 3) 욕구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용인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

본 보고서는 2016년 8~9월에 실시된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실태에 관한 분석결과이다.

Ⅱ. 조사 설계

1. 조사 대상 및 사례수

2016년 8~9월 현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타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장애인 등 욕구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최근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남동구 비거주 장애인은 사전에 배제하였고, 비동의자 등 현실적 답변이 어려운 대상자를 제외한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회수된 설문지 353부를 통계 분석하였다.

2. 조사 도구 및 조사 내용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2015 남동구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욕구 조사(2014)」 및 「서울시복지재단, 중·장년 발달장애인가족 복지욕구조사(2011)」 타 지역 장애인욕구조사 보고서인 「여수시 장애인욕구조사 보고서(2013)」, 「종로구 장애인욕구조사 보고서(2011)」,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2011)」 설문문항을 일부 반영하여 복지관 상황에 맞게 문항을 재구성 하였으며, 명목척도, 리커트 5점 척도 등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개인적 문제, 복지관 이용 관련사항, 여가 및 사회참여, 건의사항 등 기관에서 파악하고자하는 욕구를 알기위해 각 부분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표1]을 참고하면 된다.

표1 설문지의 구성

구분	문항수	내용
일반적 특성	14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종교, 복지수급대상, 결혼상태, 직업, 월평균소득, 주택소유형태, 가족형태, 거주지역, 남동구 거주기간
개인적 문제	11	경제적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건강 및 의료적인 어려움, 교육 및 학습의 어려움, 가족을 돌보는 어려움, 심리사회적 어려움, 가족관계의 어려움, 일상생활 및 활동의 어려움, 문화생활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문제발생시 도움 요청 방법
복지관 이용 관련 사항	13	복지관 이용여부,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복지관 정보경로, 복지관 이용횟수, 복지관 이용기간, 복지관 이용이유, 복지관 시설 만족도, 복지관 프로그램 만족도, 복지관 사업 지역사회 기여도, 복지관 이미지 긍정적, 복지관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이용, 복지관 이용 시 불편사항, 필요로 하는 서비스
여가 및 사회참여	7	외출횟수, 외출교통수단, 여가활동, 여가활동 만족여부, 외출시 겪는 어려움, 이용하고 싶은 여가활동지원서비스, 여가프로그램 참여의향 여부
건의사항	1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건의사항 서술형
총문항	46	

3. 설문내용 및 문항의 신뢰도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경제적 어려움, 취업, 돌봄의 어려움 등 1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고 $\alpha=0.87$ 로 나와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지관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6개의 문항을 분석한 결과 $\alpha=.90$ 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신뢰도 산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2 설문지의 문항 신뢰도

척도	신뢰도 계수(α)	문항수
생활의 불편정도	.87	10
복지관이용만족도	.90	6

4. 조사의 진행과 자료의 분석

1) 자료수집 방법 및 결과

관내 이용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담당직원들이 이용인들에게 직접 담당 직원이나 1층에 설문지 회수함을 배치하여 응답자들이 직접 설문지를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직접 설문 응답이 가능한 이용인들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직접 응답이 불가능한 이용인들의 경우는 설문지를 이용인의 각 가정으로 보내어 주부양자들이 응답한 것을 담당 직원들이 수거하여 설문 회수함에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남동구 내 19개 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표3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구분	설문지(명)
설문지 배부	500명
설문지 회수	353명
회 수 율(%)	70.6%

2) 조사 기간

이번 조사는 사업계획 수립과 설문지 배부 및 회수 등의 일련의 작업들이 4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업계획 수립은 6월 13일~6월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지 배부 및 조사기간은 7월 20일~8월 29일까지 4주간 진행 되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지의 모든 항목들은 빈도분석을 통해 그 구체적인 통계치를 산출하였고 이외에도 각 변수수준에 따라 분석방법을 변경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2016년 옥구조사 보고서

조사결과 분석

I. 조사결과

1. 응답자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① 성별

이용인의 성별 분포는 ‘남자’ 58.4%(195명), 여자 41.6%(139명)로 조사되어 남자가 여자보다 16.8%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응답자 성별

구분	빈도(명)	비율(%)
남자	195	58.4
여자	139	41.6
계	334	100.0

결측값 제외 (N=24)

② 연령

연령분포를 보면 10대 미만은 13.0%(43명), 10대는 10.9%(36명), 20대는 28.4%(94명), 30대는 10.9%(36명), 40대는 8.2%(27명), 50대는 10.9%(36명), 60대는 5.1%(17명), 70대는 7.9%(26명), 80대 이상 100대 미만은 4.8%(16명)로 나타나 20대가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녀 모두 20대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10세 미만의 응답자가 두 번째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30대와 10대 응답자가 많았다. 60대 이상 응답자는 남성이 11.2%, 여성응답자가 25.3%로 약 2배 이상 여성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80대 응답자 5% 중 남성이 2.1%, 여성이 9.1%로 약 4배 이상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응답자 연령별 성별 분포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있다.

표5 응답자의 연령대

구분	빈도(명)	비율(%)
10대미만	43	13.0
10대	36	10.9
20대	94	28.4
30대	36	10.9
40대	27	8.2
50대	36	10.9
60대	17	5.1
70대	26	7.9
80대	16	4.8
계	331	100.0

결측값 제외 (N=27)

표6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구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10대미만	32 17.0%	11 8.3%	43 13.4%
10대	23 12.2%	12 9.1%	35 10.9%
20대	57 30.3%	34 25.8%	91 28.4%
30대	18 9.6%	15 11.4%	33 10.3%
40대	9 4.8%	16 12.1%	25 7.8%
50대	28 14.9%	8 6.1%	36 11.3%
60대	9 4.8%	7 5.3%	16 5.0%
70대	8 4.3%	17 12.9%	25 7.8%
80대	4 2.1%	12 9.1%	16 5.0%
	188 100.0%	132 100.0%	320 100.0%

③ 장애 유형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 22.6%(78명), 뇌병변장애 14.2%(49명), 시각장애 9.3%(32명), 청각장애 4.6%(16명), 언어장애 3.2%(11명) 지적장애 23.8%(82명), 자폐성장애 1.04%(36명), 정신장애 4.6%(16명), 신장장애 0.3%(1명), 심장장애 0.6%(2명), 호흡기장애 0.6%(2명), 뇌전증장애 0.3%(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장애를 등록하지 않는 응답자도 5.5%(19명)으로 나타났다. 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7 응답자의 장애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지체장애	78	22.6
뇌병변장애	49	14.2
시각장애	32	9.3
청각장애	16	4.6
언어장애	11	3.2
지적장애	82	23.8
자폐성장애	36	10.4
정신장애	16	4.6
신장장애	1	.3
심장장애	2	.6
호흡기장애	2	.6
뇌전증장애	1	.3
미등록	19	5.5
합계	345	100.0

결측값 제외 (N=13)

④ 장애 등급

조사 대상의 장애 등급 분포는 1급이 33.3%(115명), 2급이 27%(93명), 3급이 20.3%(70명), 4급이 5.2%(18명), 5급이 4.6%(16명), 6급이 4.1%(14명), 미등록이 5.5%(19명)로 나타나 1급의 분포도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8 응답자의 장애등급

구분	빈도(명)	비율(%)
1급	115	33.3
2급	93	27.0
3급	70	20.3
4급	18	5.2
5급	16	4.6
6급	14	4.1
미등록	19	5.5
계	345	100.0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연령별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표9 장애유형별 등급별 분포

장애유형	장애등급							전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미등록	
지체장애	21 18.3%	16 17.8%	19 27.1%	6 33.3%	6 37.5%	8 57.1%	0 0.0%	76 22.4%
뇌병변장애	29 25.2%	6 6.7%	6 8.6%	2 11.1%	6 37.5%	0 0.0%	0 0.0%	49 14.4%
시각장애	13 11.3%	4 4.4%	7 10.0%	2 11.1%	2 12.5%	4 28.6%	0 0.0%	32 9.4%
청각장애	4 3.5%	5 5.6%	1 1.4%	4 22.2%	2 12.5%	0 0.0%	0 0.0%	16 4.7%
언어장애	1 .9%	3 3.3%	4 5.7%	2 11.1%	0 0.0%	0 0.0%	1 5.9%	11 3.2%
지적장애	26 22.6%	37 41.1%	18 25.7%	0 0.0%	0 0.0%	0 0.0%	1 5.9%	82 24.1%
자폐성장애	19 16.5%	15 16.7%	2 2.9%	0 0.0%	0 0.0%	0 0.0%	0 0.0%	36 10.6%
정신장애	1 .9%	3 3.3%	12 17.1%	0 0.0%	0 0.0%	0 0.0%	0 0.0%	16 4.7%
신장장애	0 0.0%	0 0.0%	0 0.0%	1 5.6%	0 0.0%	0 0.0%	0 0.0%	1 .3%
심장장애	0 0.0%	0 0.0%	1 1.4%	0 0.0%	0 0.0%	1 7.1%	0 0.0%	2 .6%
호흡기장애	1 .9%	0 0.0%	0 0.0%	1 5.6%	0 0.0%	0 0.0%	0 0.0%	2 .6%
뇌전증장애	0 0.0%	1 1.1%	0 0.0%	0 0.0%	0 0.0%	0 0.0%	0 0.0%	1 .3%
미등록	0 0.0%	0 0.0%	0 0.0%	0 0.0%	0 0.0%	1 7.1%	15 88.2%	16 4.7%
전체	115 100.0%	90 100.0%	70 100.0%	18 100.0%	16 100.0%	14 100.0%	17 100.0%	340 100.0%

⑤ 종교

조사대상자의 종교의 분포를 보면 무교 38.2%(131명), 천주교 14.9%(51명), 기독교 39.7%(136명), 불교 5.2%(18명), 기타 2.0%(7명)로 나타나 기독교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응답자의 종교

구분	빈도(명)	비율(%)
무교	131	38.2
천주교	51	14.9
기독교	136	39.7
불교	18	5.2
기타	7	2.0
합계	343	100.0

결측값 제외 (N=15)

⑥ 응답자의 경제상태

조사대상자의 경제상태를 기초생활 수급여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수급자(일반) 62.3%(207명), 수급권자 31.9%(106명), 조건부 수급권자 5.7%(19명)로 나타나 비수급자(일반)의 분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1 경제상태

구분	빈도(명)	비율(%)
비수급자(일반)	207	62.3
수급권자	106	31.9
조건부수급권자	19	5.7
계	332	100.0

결측값 제외 (N=26)

⑦ 결혼상태

조사대상자의 결혼상태를 보면 미혼이 62.8%(211명), 기혼이 18.2%(61명), 이혼이 7.4%(25명), 사별이 11.3%(38명), 별거가 0.3%(1명)로 나타나 미혼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결혼상태

구분	빈도(명)	비율(%)
미혼	211	62.8
기혼	61	18.2
이혼	25	7.4
사별	38	11.3
별거	1	0.3
계	336	100.0

결측값 제외 (N=22)

⑧ 학교 또는 직장유무

조사대상자의 학교 또는 직장유무를 보면 예가 35.4%(115명), 아니오가 64.6%(210명)로 나타나 학교 또는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학교 또는 직장유무

구분	빈도(명)	비율(%)
예	115	35.4
아니오	210	64.6
계	325	100.0

결측값 제외 (N=33)

⑨ 월평균소득

조사대상자의 월평균소득을 보면 50만원 이하가 30.4%(17명), 100만원 이하가 17.9%(10명), 150만원 이하가 25.0%(14명), 200만원 이하가 16.1%(9명), 200만원 초과가 10.7%(6명)로 나타나 50만원 이하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4 취업자의 월평균소득

구분	빈도(명)	비율(%)
1~50만원	17	30.4
51~100만원	10	17.9
101~150만원	14	25.0
151~200만원	9	16.1
200만원 초과	6	10.7
계	56	100.0

결측값 제외 (N=302)

⑩ 주택소유형태

조사대상자의 주거형태는 자가가 42.8%(136명), 전세 17.3%(55명), 월세 15.4%(49명), 영구임대 16.7%(53명), 기타 7.9%(25명)로 나타나 자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5 주거형태

구분	빈도(명)	비율(%)
자가	136	42.8
전세	55	17.3
월세	49	15.4
영구임대	53	16.7
기타	25	7.9
계	318	100.0

결측값 제외 (N=40)

⑪ 가족구성형태

조사대상자의 가족구성형태는 부부가 5.6%(19명), 부부+ 자녀가 49.9%(169명), 조부모+ 부부+ 자녀가 3.8%(13명), 한부모+ 자녀가 15.6%(53명), 조부모+ 자녀가 1.2%(4명), 혼자 사는 가구가 19.5%(66명) 기타가 4.4%(15명)로 나타나 부부+ 자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6 가족구성 형태

구분	빈도(명)	비율(%)
부부	19	5.6
부부+ 자녀	169	49.9
조부모+ 부부+ 자녀	13	3.8
한부모+ 자녀	53	15.6
조부모+ 자녀	4	1.2
혼자사는가구	66	19.5
기타	15	4.4
계	339	100.0

결측값 제외 (N=19)

⑫ 거주지역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을 보면 남동구 80.3%(277명), 인천 타지역 16.5%(65명), 타시도 2.2%(9명)으로 나타나 남동구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7 응답자의 거주지역

구분	빈도(명)	비율(%)
남동구	277	80.3
인천광역시내 타지역	57	16.5
타시도	11	3.2
계	345	100.0

결측값 제외 (N=13)

⑬ 거주지역 편리유무(장애인이 살기 편리한지)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에 장애인이 살기 편리한지를 물어본 결과 남동구가 살기 편리하다고 응답한 사례가 70.1%(234명),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가 29.9%(100명)으로 응답자들 대부분이 살기 편하다고 응답했다.

표18 거주지역의 생활편리성

구분	빈도(명)	비율(%)
예	234	70.1
아니오	100	29.9
계	334	100.0

결측값 제외 (N=24)

⑭ 남동구 거주기간

조사대상자의 남동구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하가 4.4%(12명), 2년 이하가 7.0%(19명), 3년 이하가 4.1%(11명), 5년 이하가 10.7%(29명), 10년 이하가 22.1%(60명), 10년 초과가 51.7%(140명)로 나타나 10년을 초과한 기간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남동구 평균 거주기간은 184.43개월(SD=246.5)로 약 15년 4개월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9 남동구거주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이하	12	4.4
2년이하	19	7.0
3년이하	11	4.1
5년이하	29	10.7
10년이하	60	22.1
10년초과	140	51.7
계	271	100.0

결측값 제외 (N=87)

2. 욕구조사 결과

1) 개인적인 문제인식과 도움요청 방법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인 및 가족이 생활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하여 전혀문제없다(1), 매우문제있다(5)로 하여 조사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 3.58(sd=1.0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이 건강 및 의료적 어려움 3.50(sd=1.12)을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많았고, 취업의 어려움 3.49(sd=1.36)을 문제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반면 가족간의 갈등 등의 관계적 어려움은 가장 낮은 2.64(sd=1.21)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각 항목별 생활에서의 문제인식정도는 아래 표과 같다.

표20 생활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구분	N	최소	최대	평균	SD
경제적 어려움	342	1	5	3.58	1.09
취업의 어려움	310	1	5	3.49	1.36
건강 및 의료적인 어려움	334	1	5	3.50	1.12
교육 및 학습의 어려움	311	1	5	3.18	1.19
가족을 돌보는 어려움	318	1	5	3.19	1.27
심리 사회적 어려움	325	1	5	3.34	1.15
가족관계의 어려움	327	1	5	2.64	1.21
일상생활 및 활동의 어려움	328	1	5	3.03	1.25
문화생활의 어려움	331	1	5	3.11	1.20
대인관계의 어려움	330	1	5	3.09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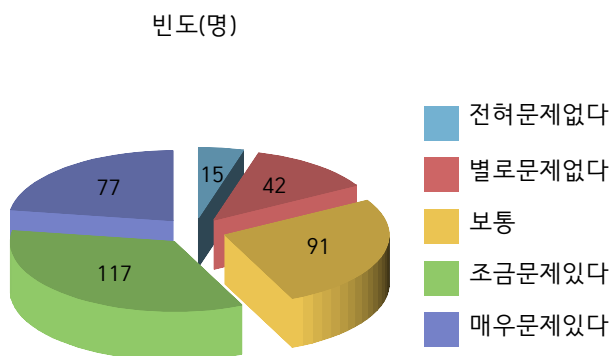
① 경제적 어려움

본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조사 중 전혀문제없다 4.4%(15명), 별로문제없다 12.3%(42명), 보통 26.6%(91명), 조금문제있다 34.2%(117명), 매우문제있다 22.5%(77명)로 나타나 조금문제있다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1 경제적 문제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문제없다	15	4.4
별로문제없다	42	12.3
보통	91	26.6
조금문제있다	117	34.2
매우문제있다	77	22.5
계	342	100.0

결측값 제외 (N=16)



② 취업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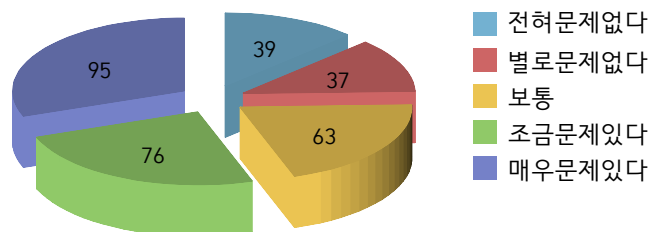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문제없다 12.6%(39명), 별로문제없다 11.9%(37명), 보통 20.3%(63명), 조금문제있다 24.5%(76명), 매우문제있다가 30.6%(95명)로 나타나 매우문제있다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2 취업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문제없다	39	12.6
별로문제없다	37	11.9
보통	63	20.3
조금문제있다	76	24.5
매우문제있다	95	30.6
계	310	100.0

결측값 제외 (N=48)

빈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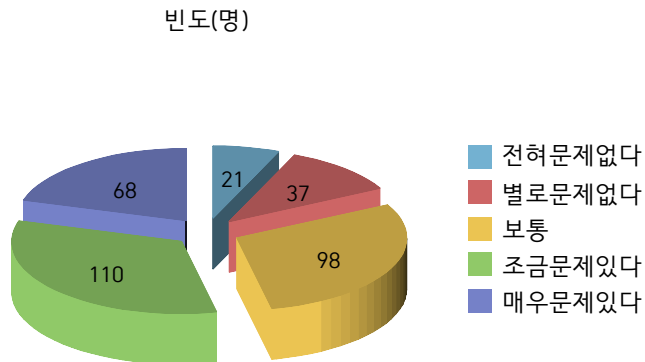
③ 건강 및 의료적인 어려움

건강 및 의료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문제없다 6.3%(21명), 별로문제없다 11.1%(37명), 보통 29.3%(98명), 조금문제있다 32.9%(110명), 매우문제있다 20.4%(68명)로 나타나 조금문제있다가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3 건강 및 의료적인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문제없다	21	6.3
별로문제없다	37	11.1
보통	98	29.3
조금문제있다	110	32.9
매우문제있다	68	20.4
계	334	100.0

결측값 제외 (N=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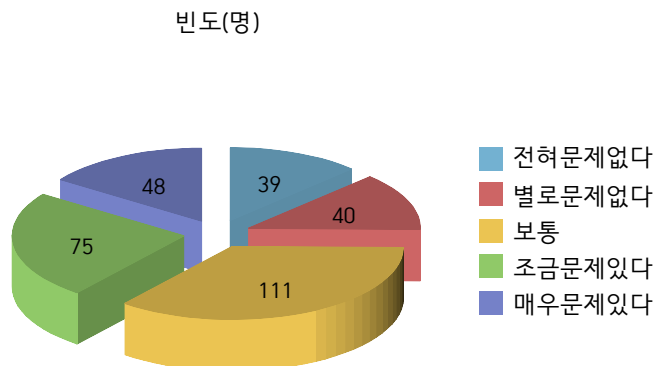
④ 교육 및 학습의 어려움

교육 및 학습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문제없다 11.9%(37명), 별로문제없다 12.9%(40명), 보통 35.7%(111명), 조금문제있다 24.1%(75명), 매우문제있다 15.4%(48명)로 나타나 보통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4 교육 및 학습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문제없다	37	11.9
별로문제없다	40	12.9
보통	111	35.7
조금문제있다	75	24.1
매우문제있다	48	15.4
계	311	100.0

결측값 제외 (N=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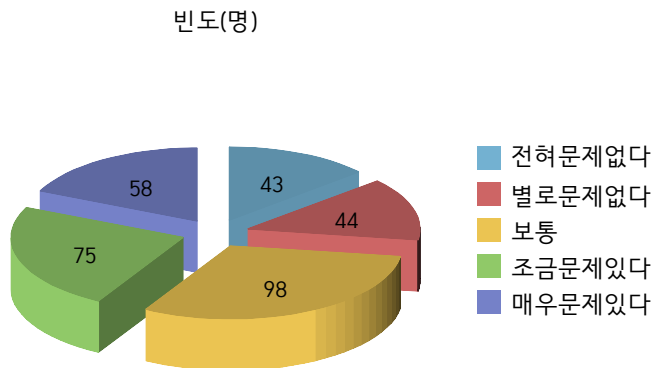
⑤ 가족을 돌보는 어려움

가족을 돌보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문제없다 13.5%(43명), 별로문제없다 13.8%(44명), 보통 30.8%(98명), 조금문제있다 23.6%(75명), 매우문제있다 18.2%(58명)로 나타나 보통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5 가족을 돌보는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문제없다	43	13.5
별로문제없다	44	13.8
보통	98	30.8
조금문제있다	75	23.6
매우문제있다	58	18.2
계	318	100.0

결측값 제외 (N=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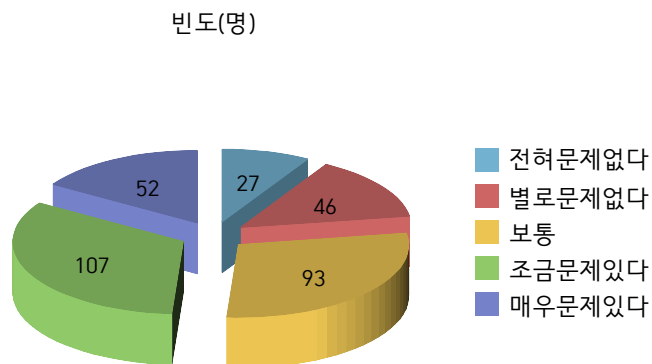
⑥ 심리 사회적 어려움

심리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문제없다 8.3%(27명), 별로문제없다 14.2%(46명), 보통28.6%(93명), 조금문제있다 32.9%(107명), 매우문제있다 16.0%(52명)로 나타나 조금문제있다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6 심리 사회적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문제없다	27	8.3
별로문제없다	46	14.2
보통	93	28.6
조금문제있다	107	32.9
매우문제있다	52	16.0
계	325	100.0

결측값 제외 (N=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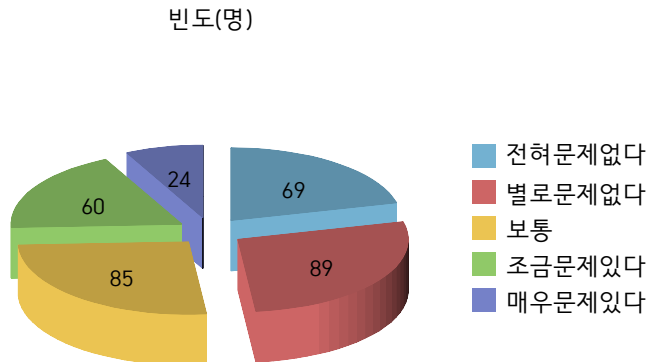
⑦ 가족관계의 어려움

가족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문제없다 21.1%(69명), 별로문제없다 27.2%(89명), 보통26.0%(85명), 조금문제있다 18.3%(60명), 매우문제있다 7.3%(24명)로 나타나 별로문제없다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7 가족관계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문제없다	69	21.1
별로문제없다	89	27.2
보통	85	26.0
조금문제있다	60	18.3
매우문제있다	24	7.3
계	327	100.0

결측값 제외 (N=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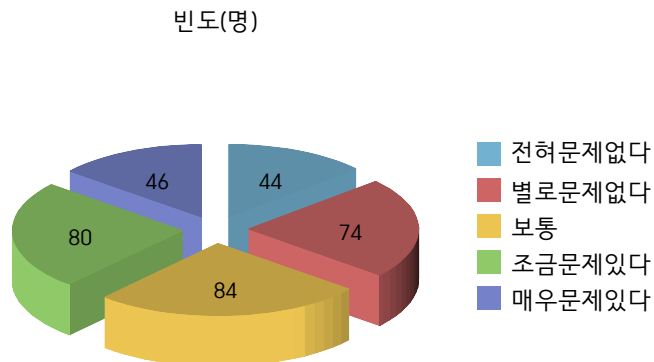
⑧ 일상생활 및 활동의 어려움

일상생활 및 활동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문제없다 13.4%(44명), 별로문제없다 22.6%(74명), 보통25.6%(84명), 조금문제있다 24.4%(80명), 매우문제있다 14.0%(46명)로 나타나 보통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8 일상생활 및 활동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문제없다	44	13.4
별로문제없다	74	22.6
보통	84	25.6
조금문제있다	80	24.4
매우문제있다	46	14.0
계	328	100.0

결측값 제외 (N=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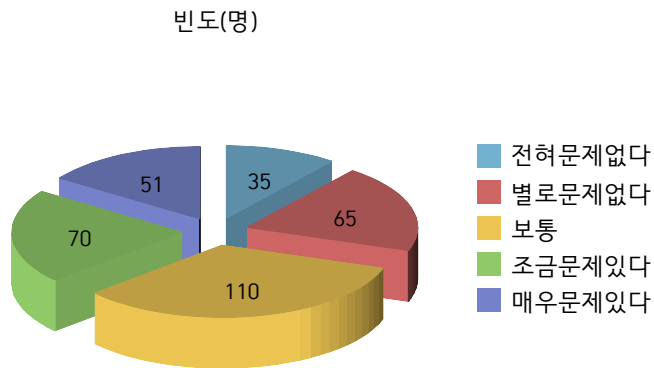
⑨ 문화생활의 어려움

문화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문제없다 10.6%(35명), 별로문제없다 19.6%(65명), 보통33.2%(110명), 조금문제있다 21.1%(70명), 매우문제있다 15.4%(51명)로 나타나 보통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9 문화생활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문제없다	35	10.6
별로문제없다	65	19.6
보통	110	33.2
조금문제있다	70	21.1
매우문제있다	51	15.4
계	331	100.0

결측값 제외 (N=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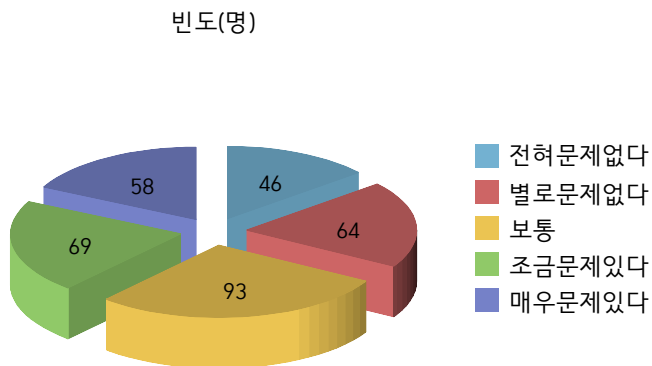
⑩ 대인관계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문제없다 13.9%(46명), 별로문제없다 19.4%(64명), 보통28.2%(93명), 조금문제있다 20.9%(69명), 매우문제있다 17.6%(58명)로 나타나 보통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0 대인관계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문제없다	46	13.9
별로문제없다	64	19.4
보통	93	28.2
조금문제있다	69	20.9
매우문제있다	58	17.6
계	330	100.0

결측값 제외 (N=28)



⑪ 어려움에 처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곳

위의 질문과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곳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도움요청 58.8%(197명), 친구, 친척, 이웃들과 상의 9.3%(31명), 관공서에 도움요청 6.0%(20명), 사회복지시설에 도움요청 9.3%(31명), 종교단체 1.5%(5명), TV, 신문, 인터넷 등 정보망이용 2.4%(8명), 혼자서 해결 한다 10.1%(34명), 기타 2.7%(9명)로 나타나 가족에게 도움요청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적 영역보다는 가족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의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31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구분	빈도(명)	비율(%)
가족에게 도움요청	197	58.8
친구, 친척, 이웃들과의 상의	31	9.3
관공서에 도움요청	20	6.0
사회복지시설에 도움요청	31	9.3
종교단체	5	1.5
TV, 신문, 인터넷 등 정보망이용	8	2.4
혼자서 해결 한다	34	10.1
기타	9	2.7
계	335	100.0

결측값 제외 (N=23)

2) 복지관 이용 관련사항

① 복지관 이용여부

복지관 이용여부에 대해서는 이용하고 있다 72.1%(243명), 이용하지 않는다 23.1%(78명), 이용한 적 있으나 현재는 이용하고 있지 않다 4.7%(16명)로 나타나 이용하고 있다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2 복지관 이용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하고 있다	243	72.1
이용하지 않다	78	23.1
이용한 적 있으나 현재는 이용하고 있지 않다	16	4.7
계	337	100.0

결측값 제외 (N=21)

②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개방형 질문으로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타기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라고 응답한 사례가 26%(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사례가 13.7%(10명)가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 연령, 장애정도 등 이용조건이 안되어서 11.0%(8명), 정보부족 때문에 9.6%(7명), 이용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8.2%(6명), 거리가 멀어서 5.5%(4명), 경제적여건이 안돼서 2.7%(2명), 이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2.7%(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33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유	빈도(명)	비율(%)
거리가 멀어서	4	5.5
시간이 없어서	10	13.7
경제적 여건이 안돼서	2	2.7
정보 부족 때문에	7	9.6
필요성이 없어서	6	8.2
이용 조건이 안돼서	8	11.0
이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2	2.7
타기관 이용 중	15	20.5
기타	19	26.0
계	73	100.0

③ 복지관 정보습득 경로

복지관의 주요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얻는가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홍보물을 통해서 41.9%(132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4.8%(15명), 인터넷(홈페이지) 11.7%(37명), 이웃의 소개나 권유로 17.5%(55명),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서 17.8%(56명), 기타 6.3%(20명)으로 나타나 복지관의 홍보물을 통해서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로가 관내 안내물 및 이웃의 추천, 본인이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많았다.

표34 복지관 정보습득 경로

구분	빈도(명)	비율(%)
복지관의 홍보물을 통해	132	41.9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15	4.8
인터넷(홈페이지)	37	11.7
이웃의 소개나 권유로	55	17.5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서	56	17.8
기타	20	6.3
계	315	100.0

④ 복지관 이용 횟수

복지관 이용횟수에 대해서는 매일이 36.6%(118명), 주2~3회 23.0%(74명), 주1회 13.0%(42명), 월2~3회 1.6%(5명), 행사 때만 6.2%(20명), 이용하지 않음 19.6%(63명)으로 나타나 매일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5 복지관 이용횟수

구분	빈도(명)	비율(%)
매일	118	36.6
주2~3회	74	23.0
주1회	42	13.0
월2~3회	5	1.6
행사 때만	20	6.2
이용하지 않음	63	19.6
계	322	100.0

⑤ 복지관이용기간

복지관 이용기간에 대해서는 1년이하 22.3%(53명), 2년이하 15.1%(36명), 3년이하 11.8%(28명), 5년이하 18.1%(43명), 10년이하 24.4%(58명), 10년초과 8.4%(20명)으로 나타나 10년이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6 복지관 이용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이하	53	22.3
2년이하	36	15.1
3년이하	28	11.8
5년이하	43	18.1
10년이하	58	24.4
10년초과	20	8.4
계	238	100.0

⑥ 복지관 이용의 주된 이유

복지관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재활을 위하여 28.4%(80명), 자립을 위하여 19.1%(54명),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13.1%(37명),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하여 8.9%(25명), 여가시간 활용을 위하여 10.6%(30명),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7.4%(21명), 식당 등 편의시설 이용을 위하여 9.2%(26명) 기타 3.2%(9명)으로 나타나 재활을 위하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주로 각종 치료교육 등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자립생활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7 복지관 이용의 주된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재활을 위하여	80	28.4
자립을 위하여	54	19.1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37	13.1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하여	25	8.9
여가시간 활용을 위하여	30	10.6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21	7.4
식당 등 편의시설 이용을 위하여	26	9.2
기타	9	3.2
계	282	100.0

결측값 제외 (N=76)

⑦ 복지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질문하여 매우그렇다(1), 전혀 아니다(5)로 응답하게 한 결과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다 1.8(sd=1.0)으로 가장 좋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긍정적인 복지관의 이미지 1.91(sd=.90), 복지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1.97(sd=.92) 였으며, 프로그램의 만족, 복지관 시설에 대한 만족, 복지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음 순으로 만족도가 좋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복지관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8 항목별 시설이용 만족도 평균

구분	N	최소	최대	평균	SD
복지관 시설 만족도	299	1	5	2.06	.88
복지관 프로그램 만족도	296	1	5	2.02	.90
복지관 사업 지역사회 기여도	296	1	5	1.97	.92
복지관 이미지 긍정적	301	1	5	1.91	.90
지속적인 이용의향	298	1	5	1.80	.98
복지관 이용 중 불편함이 없음	292	1	5	2.2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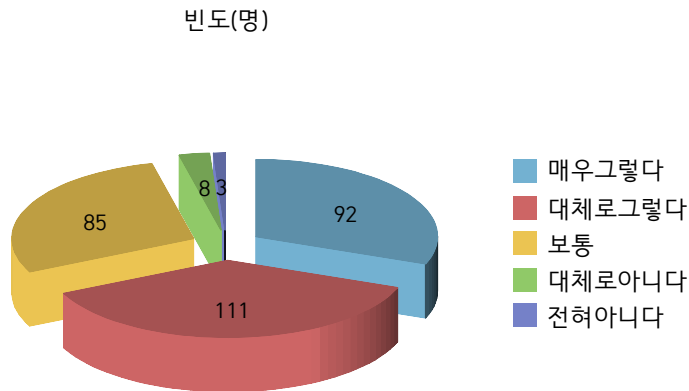
■ 시설 만족도

복지관 시설 만족에 대해서는 매우그렇다 30.8%(92명), 대체로 그렇다 37.1%(111명), 보통이 28.4%(85명), 대체로아니다 2.7%(8명), 전혀아니다 1.0%(3명)으로 나타나 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9 복지관 내 시설 만족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그렇다	92	30.8
대체로그렇다	111	37.1
보통	85	28.4
대체로아니다	8	2.7
전혀아니다	3	1.0
계	299	100.0

결측값 제외 (N=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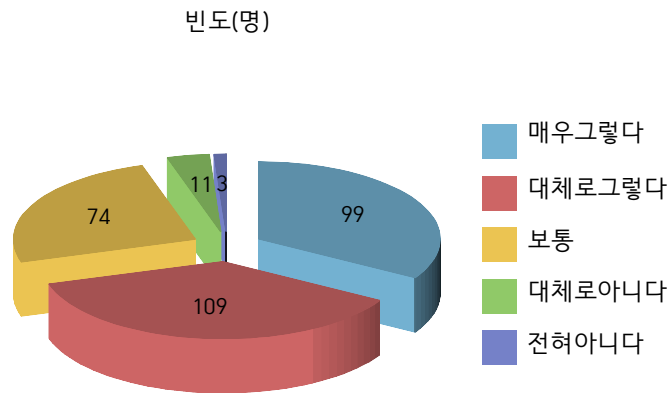
■ 복지관 프로그램 만족도

복지관 프로그램 만족에 대해서는 매우그렇다 33.4%(99명), 대체로그렇다 36.8%(109명), 보통 25.0%(74명), 대체로아니다 3.7%(11명), 전혀아니다 1.0%(3명)으로 대체로그렇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0 복지관 프로그램 만족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그렇다	99	33.4
대체로그렇다	109	36.8
보통	74	25.0
대체로아니다	11	3.7
전혀아니다	3	1.0
계	296	100.0

결측값 제외 (N=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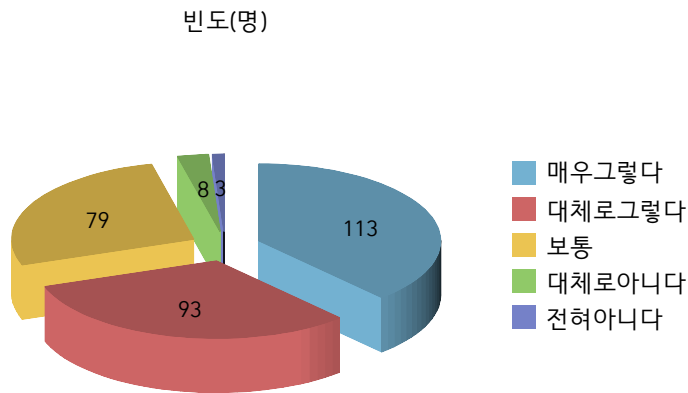
■ 복지관 사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복지관 사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는 매우그렇다 38.2%(113명), 대체로그렇다 31.4%(93명), 보통 26.7%(79명), 대체로아니다 2.7%(8명), 전혀아니다 1.0%(3명)로 나타나 매우그렇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1 복지관 사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그렇다	113	38.2
대체로그렇다	93	31.4
보통	79	26.7
대체로아니다	8	2.7
전혀아니다	3	1.0
계	296	100.0

결측값 제외 (N=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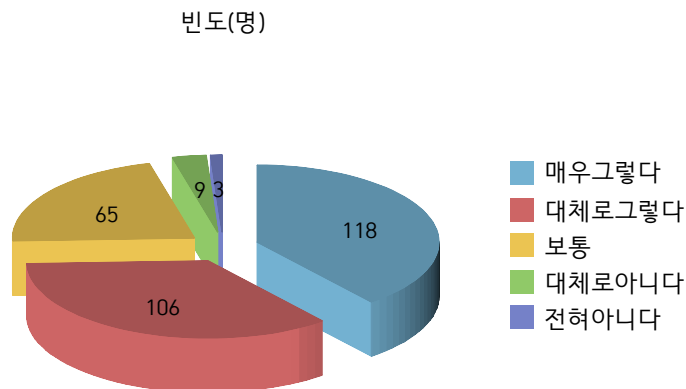
■ 복지관의 이미지 긍정적

복지관의 이미지가 긍정적인가에 대해서는 매우그렇다 39.2%(118명), 대체로그렇다 35.2%(106명), 보통 21.6%(65명), 대체로아니다 3.0%(9명), 전혀아니다 1.0%(3명)로 나타나 매우그렇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 복지관 긍정적 이미지 수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그렇다	118	39.2
대체로그렇다	106	35.2
보통	65	21.6
대체로아니다	9	3.0
전혀아니다	3	1.0
계	301	100.0

결측값 제외 (N=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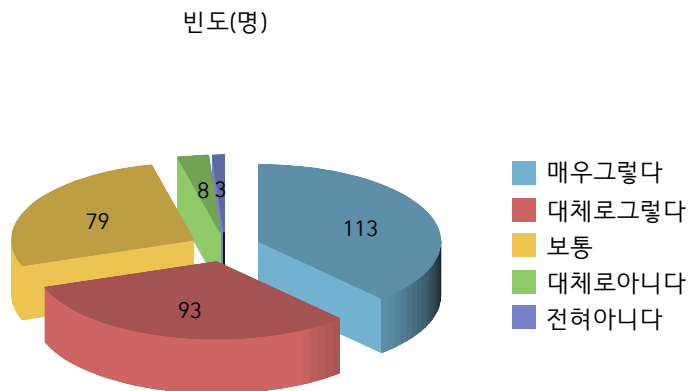
■ 복지관 프로그램 지속적인 이용 의향

지속적으로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다는 대해서는 매우그렇다 38.2%(113명), 대체로그렇다 31.4%(93명), 보통 26.7%(79명), 대체로아니다 2.7%(8명), 전혀아니다 1.0%(3명)로 나타나 매우그렇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3 지속적인 프로그램 이용 의향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그렇다	113	38.2
대체로그렇다	93	31.4
보통	79	26.7
대체로아니다	8	2.7
전혀아니다	3	1.0
계	296	100.0

결측값 제외 (N=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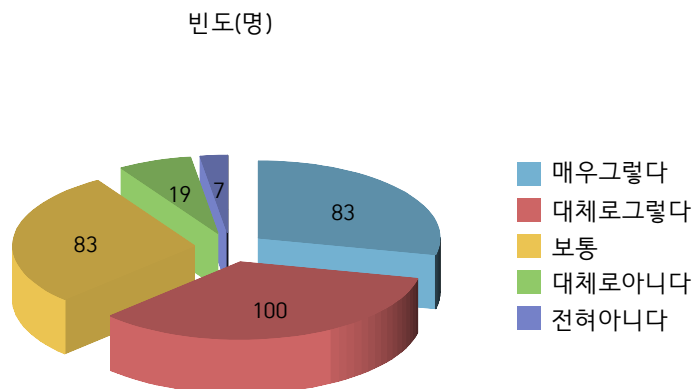
■ 복지관 이용 시 편리성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 없는데 대해서는 매우그렇다 28.4%(83명), 대체로그렇다 34.2%(100명), 보통 28.4%(83명), 대체로아니다 6.5%(19명), 전혀아니다 2.4%(7명)로 나타나 대체로그렇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4 복지관 이용시 불편 정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그렇다	83	28.4
대체로그렇다	100	34.2
보통	83	28.4
대체로아니다	19	6.5
전혀아니다	7	2.4
계	296	100.0

결측값 제외 (N=66)



⑬ 복지관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복지관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1순위로는 경제적지원이 5.0%(7명), 식사 지원이 11%(7.9명), 주거서비스 0.7%(1명), 여가문화(성인) 12.9%(18명), 여가문화(아동) 0.7%(1명), 성인치료서비스 5.7%(8명), 아동청소년치료서비스 12.1%(17명), 자립지원서비스 4.3%(6명), 일상생활훈련서비스 4.3%(6명), 평생교육서비스 2.9%(4명) 고용지원서비스 10%(14명), 위기지원 1.4%(2명), 기타 32.1%(45명)로 나타나 기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성인 대상의 여가문화지원서비스 및 아동청소년 대상의 치료지원서비스, 그리고 고용지원서비스의 빈도가 가장 많이 욕구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45 복지관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1순위

구분	빈도(명)	비율(%)
경제적지원	7	5.0
식사지원	11	7.9
주거서비스	1	0.7
여가문화(성인)	18	12.9
여가문화(아동)	1	0.7
성인치료서비스	8	5.7
아동청소년치료서비스	17	12.1
자립지원서비스	6	4.3
일상생활훈련서비스	6	4.3
평생교육서비스	4	2.9
고용지원서비스	14	10.0
위기지원	2	1.4
기타	45	32.1
계	140	100.0

결측값 제외 (N=218)

복지관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2순위로는 경제적지원이 1.1%(1명), 식사 지원이 4.5%(4명), 여가문화(성인) 23.9%(21명), 여가문화(아동) 5.7%(5명), 성인치료서비스 4.5%(4명), 아동청소년치료서비스 3.4%(3명), 자립지원서비스 3.4%(3명), 일상생활훈련서비스 5.7%(5명), 평생교육서비스 4.5%(4명) 고용지원서비스 4.5%(4명), 기타 35.6%(34명)로 나타나 기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2순위 역시 성인 대상의 여가 및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46 복지관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2순위

구분	빈도(명)	비율(%)
경제적지원	1	1.1
식사지원	4	4.5
여가문화(성인)	21	23.9
여가문화(아동)	5	5.7
성인치료서비스	4	4.5
아동청소년치료서비스	3	3.4
자립지원서비스	3	3.4
일상생활훈련서비스	5	5.7
평생교육서비스	4	4.5
고용지원서비스	4	4.5
기타	34	38.6
계	88	100.0

결측값 제외 (N=270)

3순위로는 경제적지원이 2.2%(1명), 식사지원이 2.2%(1명), 여가문화(성인) 21.7%(10명), 여가문화(아동) 4.3%(2명), 성인치료서비스 8.7%(4명), 아동청소년치료서비스 6.5%(3명), 자립지원서비스 4.3%(2명), 일상생활훈련서비스 4.3%(2명), 평생교육서비스 4.3%(2명) 고용지원서비스 10.9%(5명), 기타 30.4%(14명)로 나타나 기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3순위 역시 여가문화에 대한 서비스가 가장 많은 욕구를 보이고 있다.

표47 복지관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3순위

구분	빈도(명)	비율(%)
경제적지원	1	2.2
식사지원	1	2.2
여가문화(성인)	10	21.7
여가문화(아동)	2	4.3
성인치료서비스	4	8.7
아동청소년치료서비스	3	6.5
자립지원서비스	2	4.3
일상생활훈련서비스	2	4.3
평생교육서비스	2	4.3
고용지원서비스	5	10.9
기타	14	30.4
계	46	100.0

결측값 제외 (N=)

3) 여가 및 사회참여

① 외출 횟수

외출횟수에 대해서는 거의매일 55.1%(185명), 주2~3회23.8%(80명), 주1회 9.5%(32명), 월1~3회 4.2%(14명), 연10회 이내 1.2%(4명), 거의없음 5.7%(19명), 기타 0.6%(2명)으로 나타나 일반버스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표48 외출 빈도

구분	빈도(명)	비율(%)
거의매일	185	55.1
주2~3회	80	23.8
주1회	32	9.5
월1~3회	14	4.2
연10회 이내	4	1.2
거의 없음	19	5.7
기타	2	0.6
계	336	100.0

결측값 제외 (N=22)

② 외출시 사용하는 교통수단

외출시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일반버스 38.7%(127명), 저상버스 1.5%(5명), 일반택시 3.4%(11명), 장애인 콜택시 14.3%(47명), 지하철 5.8%(19명), 자원봉사차량 1.8%(6명), 도보 12.8%(42명), 복지기관 무료 셔틀버스 2.7%(9명), 기타 18.9%(62명)으로 나타나 일반버스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의 상당수가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임을 감안할 때 독립적 출퇴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많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표49 외출시 이동 수단

구분	빈도(명)	비율(%)
일반버스	127	38.7
저상버스	5	1.5
일반택시	11	3.4
장애인 콜택시	47	14.3
지하철	19	5.8
자원봉사차량	6	1.8
도보(전동스쿠터, 휠체어)	42	12.8
복지기관 무료 셔틀버스	9	2.7
기타	62	18.9
계	328	100.0

② 평소 주로 하는 여가활동

평소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의 종류를 물어본 결과 TV시청 19.3%(32명), 운동 19.9%(33명), 컴퓨터게임 18.1%(30명) 등이 많은 빈도를 보였고 영화, 음악, 종교활동 등의 빈도도 다수 조사되었다. 주로 혼자서하거나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여가를 많이 즐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동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50 평소 주로 하는 여가활동

구분	빈도(명)	비율(%)
음악감상	11	6.6
종교활동	10	6.0
영화감상	12	7.2
TV시청	32	19.3
친구들 만남	14	8.4
각종수집	3	1.8
컴퓨터(게임 등)	30	18.1
여행	9	5.4
자원봉사	1	.6
운동	33	19.9
기타	11	6.6
합계	166	100.0

결측값 제외 (N=22)

④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만족 10.8%(36명), 만족 31.3%(104명), 보통 44.0%(146명), 불만족 9.9%(33명), 매우불만족 3.9%(13명)으로 나타나 보통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표51 여가활동 만족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만족	36	10.8
만족	104	31.3
보통	146	44.0
불만족	33	9.9
매우 불만족	13	3.9
계	332	100.0

⑤ 외출시 가장 큰 어려움

외출시 가장 큰 어려움은 도로상황(계단, 횡단보도 등)21.4%(60명), 대중교통 이용 26.7%(75명), 화장실 사용 10.3%(29명), 주차문제 8.9%(25명),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18.1%(15명)으로 편의시설 미비, 활동지원인 부족 10.3%(29명), 기타 4.3%(13명)나타나 보통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표52 외출시 가장 큰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도로상황(계단, 횡단보도 등)	60	21.4
대중교통 이용	75	26.7
화장실 사용	29	10.3
주차문제	25	8.9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51	18.1
활동지원인 부족	29	10.3
기타	12	4.3
계	281	100.0

결측값 제외 (N=77)

⑥ 필요한 여가활동지원서비스

필요한 여가활동지원서비스 1순위는 스포츠, 여행, 신체적 오락 등의 신체 활동 65.6%(80명), 예술, 문화, 음악, 연극 등의 사교활동 26.2%(32명), 독서, 창작, 연설, 강연, 조사, 연구 등과 같은 지적활동 4.1%(5명), 대화, 놀이, 모임, 연회 등의 사회활동 2.5%(3명), 라디오 청취, TV시청 운동경기관람 등의 여흥활동 1.6%(2명)으로 나타나 스포츠, 여행, 신체적 오락 등의 신체활동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표53 필요한 여가활동 지원서비스 1순위

구분	빈도(명)	비율(%)
스포츠, 여행, 신체적 오락 등의 신체활동	80	65.6
예술, 문화, 음악, 연극 등의 사교활동	32	26.2
독서, 창작, 연설, 강연, 조사, 연구 등과 같은 지적활동	5	4.1
대화, 놀이, 모임, 연회 등의 사회활동	3	2.5
라디오 청취, TV시청 운동경기 관람 등의 여흥활동	2	1.6
계	122	100.0

결측값 제외 (N=236)

필요한 여가활동지원서비스 2순위는 스포츠, 여행, 신체적 오락 등의 신체 활동 44.0%(33명), 예술, 문화, 음악, 연극 등의 사교활동 36.0%(27명), 독서, 창작, 연설, 강연, 조사, 연구 등과 같은 지적활동 8.0%(6명), 대화, 놀이, 모임, 연회 등의 사회활동 8.0%(6명), 라디오 청취, TV시청 운동경기관람 등의 여흥활동 4.0%(3명)으로 나타나 스포츠, 여행, 신체적 오락 등의 신체활동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표54 필요한 여가활동 지원서비스 2순위

구분	빈도(명)	비율(%)
스포츠, 여행, 신체적 오락 등의 신체활동	33	44.0
예술, 문화, 음악, 연극 등의 사교활동	27	36.0
독서, 창작, 연설, 강연, 조사, 연구 등과 같은 지적활동	6	8.0
대화, 놀이, 모임, 연회 등의 사회활동	6	8.0
라디오 청취, TV시청 운동경기 관람 등의 여흥활동	3	4.0
계	75	100.0

결측값 제외 (N=283)

⑦ 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참여의향 여부

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참여의향 여부에 대해서는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78.3%(252명),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례가 21.7%(70명)로 응답자들 대부분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55 여가프로그램 참여의향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252	78.3
없다	70	21.7
계	322	100.0

결측값 제외 (N=36)

4) 건의사항

서술형으로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라는 문항에는 여가·문화활동 지원 3건, 성인장애인 프로그램 확대 운영 3건, 중증장애인 서비스 지원 3건, 치료수업 확충 5건, 프로그램 다양화 4건, 취업지원 2건, 주차공간 확보 7건, 휴식공간 확대 7건, 차량운행 지원 3건으로 조사되었다.

표56 기타의견 및 욕구 관련사항

구분	빈도(명)
여가·문화활동 지원	3
성인장애인 프로그램 확대 운영	3
중증장애인 서비스 지원	3
치료수업 확충	5
프로그램 다양화	4
주차공간 확보	7
휴식공간 확대	7
차량운행 지원	3
계	37

여가·문화활동 지원에는 3건의 의견이 나왔으며, 장애인이 다양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문화 활동을 자주 지원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성인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3건의 의견이 나왔고, 향후 프로그램 운영 시 욕구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주간 보호나 일터로 향해 활동할 수 없는 성인 장애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인장애인이 평상시 심심해하거나 무력하지 않게 이끌어 주셨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3건의 의견이 나왔으며,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중증장애인에게 주간 보호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 주세요.”

“중증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세요.”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수업 확충에 대한 의견은 5건이 접수되었으며, 치료과목 및 수업시간을 확충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수업이 더 확충되어 재활 및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 모두 수업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치료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인 물리치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의견은 4건이 접수되었으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프로그램이 확충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7건이 접수 되었으며, 복지관 이용 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므로 주차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휴식공간 확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7건이 접수 되었으며, 복지관 이용 시 쉬는 공간이나 간식 및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차량운행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3건이 접수 되었으며, 복지관 이용 시 복지관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기타의견으로 ‘개인치료 말고 짝치료나 모둠 치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탁구, 배드민턴, 당구 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 프로그램이(요리활동)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운영 시 이용인의 욕구를 수렴하여 각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옥구조사 보고서

결 론

Ⅲ. 요약 및 제언

1. 조사결과 요약

2016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는 2016년 8~9월 현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남동구 관내 19개 주민센터의 협조를 통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대상인 총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회수된 설문지 353부를 회수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2014년 남동구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욕구 조사(2014)」 및 「서울시복지재단, 중·장년 발달장애인가족 복지욕구조사(2011)」 설문문항을 일부 반영하여 복지관 상황에 맞게 문항을 재구성 하였으며, 명목척도, 리커트 5점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재능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통하여 설문지 구성에 대한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복지에 대한 개인적 문제인식, 우리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만족도, 장애인복지 서비스 욕구, 여가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참여의사와 건의사항 등으로 조사했다.

1)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성별 분포는 ‘남자’ 58.4%(195명), 여자 41.6%(139명)로 조사되어 남자가 여자보다 16.8%p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분포는 10대 미만 13.0%(43명), 10대 10.9%(36명), 20대 28.4%(94명), 30대 10.9%(36명), 40대 8.2%(27명), 50대 10.9%(36명), 60대 5.1%(17명), 70대 7.9%(26명), 80대 이상 100대 미만 4.8%(16명)로 조사되

어 20대가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 38.2%(131명), 천주교 14.9%(51명), 기독교 39.7%(136명), 불교 5.2%(18명), 기타 2.0%(7명)로 나타나 기독교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수급대상은 비수급자(일반) 62.3%(207명), 수급권자 31.9%(106명), 조건부 수급권자 5.7%(19명)로 나타나 비수급자(일반)의 분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62.8%(211명), 기혼이 18.2%(61명), 이혼이 7.4%(25명), 사별이 11.3%(38명), 별거가 0.3%(1명)로 나타나 미혼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또는 직장유무를 보면 예 35.4%(115명), 아니오 64.6%(210명)로 나타나 학교 또는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가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50만원 이하가 30.4%(17명), 100만원 이하가 17.9%(10명), 150만원 이하가 25.0%(14명), 200만원 이하가 16.1%(9명), 200만원 초과가 10.7%(6명)로 나타나 50만원 이하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자가가 42.8%(136명), 전세 17.3%(55명), 월세 15.4%(49명), 영구임대 16.7%(53명), 기타 7.9%(25명)로 나타나 자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형태는 부부가 5.6%(19명), 부부+ 자녀가 49.9%(169명), 조부모+ 부부+ 자녀가 3.8%(13명), 한부모+ 자녀가 15.6%(53명), 조부모+ 자녀가 1.2%(4명), 혼자 사는 가구가 19.5%(66명) 기타가 4.4%(15명)로 나타나 부부+ 자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남동구 80.3%(277명), 인천 타지역 16.5%(65명), 타시도 2.2%(9명)으로 나타나 남동구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장애인이 살기 편리한지를 살펴보면 남동구가 살기 편리하다고 응답한 사례가 70.1%(234명),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가 29.9%(100명)으로 응답자들 대부분이 살기 편하다고 응답했다.

남동구 거주기간은 1년 이하 4.4%(12명), 2년 이하 7.0%(19명), 3년 이하 4.1%(11명), 5년 이하 10.7%(29명), 10년 이하 22.1%(60명), 10년 초과 51.7%(140명)로 나타나 10년을 초과한 기간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남동구 평균 거주기간은 184.43개월로 약 15년 4개월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관련 특성 ■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22.6%(78명), 뇌병변장애 14.2%(49명), 시각장애 9.3%(32명), 청각장애 4.6%(16명), 언어장애 3.2%(11명) 지적장애 23.8%(82명), 자폐성장애 1.04%(36명), 정신장애 4.6%(16명), 신장장애 0.3%(1명), 심장장애 0.6%(2명), 호흡기장애 0.6%(2명), 뇌전증장애 0.3%(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장애를 등록하지 않는 응답자도 5.5%(19명)으로 나타났다. 주로 장애 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장애등급 분포는 1급이 33.3%(115명), 2급이 27%(93명), 3급이 20.3%(70명), 4급이 5.2%(18명), 5급이 4.6%(16명), 6급이 4.1%(14명), 미등록이 5.5%(19명)로 나타나 1급의 분포도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욕구조사결과

■ 개인적 문제인식 ■

본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전혀문제없다 4.4%(15명), 별로문제없다 12.3%(42명), 보통 26.6%(91명), 조금문제있다 34.2%(117명), 매우문제있다 22.5%(77명)로 나타나 조금문제있다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문제없다 12.6%(39명), 별로문제없다 11.9%(37명), 보통 20.3%(63명), 조금문제있다 24.5%(76명), 매우문제있다가 30.6%(95명)로 나타나 매우문제있다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및 의료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문제없다 6.3%(21명), 별로문제없다 11.1%(37명), 보통 29.3%(98명), 조금문제있다 32.9%(110명), 매우문제있다 20.4%(68명)로 나타나 조금문제있다가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학습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문제없다 11.9%(37명), 별로문제없다 12.9%(40명), 보통 35.7%(111명), 조금문제있다 24.1%(75명), 매우문제있다 15.4%(48명)로 나타나 보통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돌보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문제없다 13.5%(43명), 별로문제없다 13.8%(44명), 보통 30.8%(98명), 조금문제있다 23.6%(75명), 매우문제있다 18.2%(58명)로 나타나 보통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문제없다 8.3%(27명), 별로문제없다 14.2%(46명), 보통 28.6%(93명), 조금문제있다 32.9%(107명), 매우문제있다 16.0%(52명)로 나타나 조금문제있다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문제없다 21.1%(69명), 별로문제없다 27.2%(89명), 보통26.0%(85명), 조금문제있다 18.3%(60명), 매우문제있다 7.3%(24명)로 나타나 별로문제없다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및 활동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문제없다 13.4%(44명), 별로문제없다 22.6%(74명), 보통25.6%(84명), 조금문제있다 24.4%(80명), 매우문제있다 14.0%(46명)로 나타나 보통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문제없다 10.6%(35명), 별로문제없다 19.6%(65명), 보통33.2%(110명), 조금문제있다 21.1%(70명), 매우문제있다 15.4%(51명)로 나타나 보통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문제없다 13.9%(46명), 별로문제없다 19.4%(64명), 보통28.2%(93명), 조금문제있다 20.9%(69명), 매우문제있다 17.6%(58명)로 나타나 보통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주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가족에게 도움요청 58.8%(197명), 친구, 친척, 이웃들과 상의 9.3%(31명), 관공서에 도움요청 6.0%(20명), 사회복지시설에 도움요청 9.3%(31명), 종교단체 1.5%(5명), TV, 신문, 인터넷 등 정보망이용 2.4%(8명), 혼자서 해결 한다 10.1%(34명), 기타 2.7%(9명)로 나타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적 영역보다는 가족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의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복지관 이용 관련 만족도 사항 ■

복지관 이용여부에 대해서는 이용하고 있다 72.1%(243명), 이용하지 않는다 23.1%(78명), 이용한 적 있으나 현재는 이용하고 있지 않다 4.7%(16명)로 나타나 이용하고 있다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으로 질문하였고, 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타기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라고 응답한 사례가 26%(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사례가 13.7%(10명)으로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 연령, 장애정도 등 이용요건이 안되어서 11.0%(8명), 정보부족 때문에 9.6%(7명), 이용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8.2%(6명), 거리가 멀어서 5.5%(4명), 경제적여건이 안돼서 2.7%(2명), 이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2.7%(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복지관의 주요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얻는가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홍보물을 통해서 41.9%(132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4.8%(15명), 인터넷(홈페이지) 11.7%(37명), 이웃의 소개나 권유로 17.5%(55명),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서 17.8%(56명), 기타 6.3%(20명)으로 나타나 복지관의 홍보물을 통해서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로가 관내 안내물 및 이웃의 추천, 본인이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많았다.

복지관 이용횟수에 대해서는 매일이 36.6%(118명), 주2~3회 23.0%(74명), 주1회 13.0%(42명), 월2~3회 1.6%(5명), 행사 때만 6.2%(20명), 이용하지 않음 19.6%(63명)으로 나타나 매일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이용기간에 대해서는 1년이하 22.3%(53명), 2년이하 15.1%(36명), 3년이하 11.8%(28명), 5년이하 18.1%(43명), 10년이하 24.4%(58명), 10년초과 8.4%(20명)으로 나타나 10년이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활을 위하여 28.4%(80명), 자립을 위하여 19.1%(54명),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13.1%(37명),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하여 8.9%(25명), 여가시간 활용을 위하여 10.6%(30명),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7.4%(21명), 식당 등 편의시설 이용을 위하여 9.2%(26명) 기타 3.2%(9명)으로 나타나 재활을 위하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주로 각종 치료교육 등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자립생활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지관 시설 만족에 대해서는 매우그렇다 30.8%(92명), 대체로 그렇다 37.1%(111명), 보통이 28.4%(85명), 대체로아니다 2.7%(8명), 전혀아니다 1.0%(3명)으로 나타나 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프로그램 만족에 대해서는 매우그렇다 33.4%(99명), 대체로그렇다 36.8%(109명), 보통 25.0%(74명), 대체로아니다 3.7%(11명), 전혀아니다 1.0%(3명)으로 대체로그렇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사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는 매우그렇다 38.2%(113명), 대체로그렇다 31.4%(93명), 보통 26.7%(79명), 대체로아니다 2.7%(8명), 전혀아니다 1.0%(3명)로 나타나 매우그렇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의 이미지가 긍정적인가에 대해서는 매우그렇다 39.2%(118명), 대체로그렇다 35.2%(106명), 보통 21.6%(65명), 대체로아니다 3.0%(9명), 전혀아니다 1.0%(3명)로 나타나 매우그렇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다는 대해서는 매우그렇다 38.2%(113명), 대체로그렇다 31.4%(93명), 보통 26.7%(79명), 대체로아니다 2.7%(8명), 전혀아니다 1.0%(3명)로 나타나 매우그렇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 없는데 대해서는 매우그렇다 28.4%(83명), 대체로그렇다 34.2%(100명), 보통 28.4%(83명), 대체로아니다 6.5%(19명), 전혀아니다 2.4%(7명)로 나타나 대체로그렇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1순위로는 경제적지원 5.0%(7명), 식사지원이 11%(7.9명), 주거서비스 0.7%(1명), 여가문화(성인) 12.9%(18명), 여가문화(아동) 0.7%(1명), 성인치료서비스 5.7%(8명), 아동청소년치료서비스 12.1%(17명), 자립지원서비스 4.3%(6명), 일상생활훈련서비스 4.3%(6명), 평생교육서비스 2.9%(4명) 고용지원서비스 10%(14명), 위기지원 1.4%(2명), 기타 32.1%(45명)로 나타나 기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성인 대상의 여가문화지원서비스 및 아동청소년 대상의 치료지원서비스, 그리고 고용지원서비스의 빈도가 가장 많이 욕구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관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2순위로는 경제적지원이 1.1%(1명), 식사지원이 4.5%(4명), 여가문화(성인) 23.9%(21명), 여가문화(아동) 5.7%(5명), 성인치료서비스 4.5%(4명), 아동청소년치료서비스 3.4%(3명), 자립지원서비스 3.4%(3명), 일상생활훈련서비스 5.7%(5명), 평생교육서비스 4.5%(4명) 고용지원서비스 4.5%(4명), 기타 35.6%(34명)로 나타나 기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2순위 역시 성인 대상의 여가 및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3순위로는 경제적지원이 2.2%(1명), 식사지원이 2.2%(1명), 여가문화(성인) 21.7%(10명), 여가문화(아동) 4.3%(2명), 성인치료서비스 8.7%(4명), 아동청소년치료서비스 6.5%(3명), 자립지원서비스 4.3%(2명), 일상생활훈련서비스 4.3%(2명), 평생교육서비스 4.3%(2명) 고용지원서비스 10.9%(5명), 기타 30.4%(14명)로 나타나 기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3순위 역시 여가문화에 대한 서비스가 가장 많은 욕구를 보이고 있다.

■ 여가서비스에 대한 욕구사항 ■

외출횟수에 대해서는 거의매일 55.1%(185명), 주2~3회 23.8%(80명), 주1회 9.5%(32명), 월1~3회 4.2%(14명), 연10회 이내 1.2%(4명), 거의없음 5.7%(19명), 기타 0.6%(2명)으로 나타나 일반버스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외출 시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일반버스 38.7%(127명), 저상버스 1.5%(5명), 일반택시 3.4%(11명), 장애인 콜택시 14.3%(47명), 지하철 5.8%(19명), 자원봉사차량 1.8%(6명), 도보 12.8%(42명), 복지기관 무료 셔틀버스 2.7%(9명), 기타 18.9%(62명)으로 나타나 일반버스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의 상당수가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임을 감안할 때 독립적 출퇴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많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평소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의 종류를 물어본 결과 TV시청 19.3%(32명), 운동 19.9%(33명), 컴퓨터게임 18.1%(30명) 등이 많은 빈도를 보였고 영화, 음악, 종교활동 등의 빈도도 다수 조사되었다. 주로 혼자서하거나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여가를 많이 즐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동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동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만족 10.8%(36명), 만족 31.3%(104명), 보통 44.0%(146명), 불만족 9.9%(33명), 매우불만족 3.9%(13명)으로 나타나 보통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외출시 가장 큰 어려움은 도로상황(계단, 횡단보도 등) 21.4%(60명), 대중교통 이용 26.7%(75명), 화장실 사용 10.3%(29명), 주차문제 8.9%(25명),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18.1%(15명)으로 편의시설 미비, 활동지원인 부족 10.3%(29명), 기타 4.3%(13명) 나타나 보통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필요한 여가활동지원서비스 1순위는 스포츠, 여행, 신체적 오락 등의 신체활

동 65.6%(80명), 예술, 문화, 음악, 연극 등의 사교활동 26.2%(32명), 독서, 창작, 연설, 강연, 조사, 연구 등과 같은 지적활동 4.1%(5명), 대화, 놀이, 모임, 연회 등의 사회활동 2.5%(3명), 라디오 청취, TV시청 운동경기관람 등의 여흥활동 1.6%(2명)으로 나타나 스포츠, 여행, 신체적 오락 등의 신체활동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필요한 여가활동지원서비스 2순위는 스포츠, 여행, 신체적 오락 등의 신체활동 44.0%(33명), 예술, 문화, 음악, 연극 등의 사교활동 36.0%(27명), 독서, 창작, 연설, 강연, 조사, 연구 등과 같은 지적활동 8.0%(6명), 대화, 놀이, 모임, 연회 등의 사회활동 8.0%(6명), 라디오 청취, TV시청 운동경기관람 등의 여흥활동 4.0%(3명)으로 나타나 스포츠, 여행, 신체적 오락 등의 신체활동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참여의향 여부에 대해서는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78.3%(252명),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례가 21.7%(70명)로 응답자들 대부분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2. 제언

2016년도 남동구 장애인 욕구조사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위하여 설문지 구성부터 정교한 조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동구 관내 주민센터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설문을 하고 회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국가통계 및 사회지표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의 서비스 욕구와 장애인복지관에 원하는 서비스를 분류하여 조사함으로써 복지관의 향후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를 얻을 수 있었다.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장애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과 의료에 대한 욕구가 아직까지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고용에 대한 욕구도 높게 나타나 인간이 영위해야 할 기본권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많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조사대상인 장애인들은 위의 중요한 기본권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교육, 가족돌봄, 심리사회적 어려움, 문화생활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58.8%가 가족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한 다고 이야기한 것을 볼 때 공공의 영역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상당히 부족하거나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및 공공의 영역에서 이러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가능한 자원을 프로그램들을 보급함으로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복지관을 이용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복지관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복지관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각종 시설의 개보수, 편의시설의 확충 등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복지관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인의 경우 여가문화 프로그램, 아동 청소년의 경우 치료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욕구를 보이고 있었으며, 2순위역시 여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특히 여가활동 관련하여 운동, 스포츠 등의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향후 이 점에 주목하여 스포츠, 여행 등의 신체활동을 포함한 여가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욕구조사가 남동구 및 우리복지관의 서비스 개발과 정책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내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 성인 대상의 여가 지원 및 청소년 대상의 치료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지역장애인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제공되는 사람중심의 복지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외어야 할 것이다.

2016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설문지

설문지ID	
-------	--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남동구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안녕하세요?

귀하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희 남동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재활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장애인들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지역 장애인의 문제점과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는 복지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쓰여질 것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통계처리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보장이 되며, 통계조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7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1. 다음은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v' 표시를 해주세요.

(만일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리 응답할 경우, 장애인 당사자를 기준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1. 성 별	①남자 ②여자	2. 연 령	만_____세
3. 장애유형 (중복장애인 경우 모두 표기해주세요)	①지체장애 ④청각장애 ⑦자폐성장애 ⑩심장장애 ⑬안면장애 ⑯미등록	②뇌병변장애 ⑤언어장애 ⑧정신장애 ⑪호흡기장애 ⑭장루·요루장애	③시각장애 ⑥지적장애 ⑨신장장애 ⑫간장애 ⑮뇌전증(간질)장애
4. 장애등급	①1급 ②2급 ③3급 ④4급 ⑤5급 ⑥6급 ⑦미등록		
5. 종교	① 무교 ② 천주교 ③ 기독교 ④ 불교 ⑤기타()		
6. 복지수급대상	①수급대상 아님(일반) ② 수급권자 ③조건부 수급권자		
7. 결혼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별거 ⑥ 기타()		
8. 귀하는 학교 또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① 예(직업 기입: _____) ② 아니오		
8-1. 직장을 다니신다면, 직업을 통해서 얻는 월평균소득은 얼마 입니까?	()만원		
9. 주택소유형태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영구임대 ⑤ 기타()		
10. 가족구성 형태	① 부부 ② 부부+자녀 ③ 조부모+부부+자녀 ④ 한부모+자녀 ⑤ 조부모+자녀 ⑥ 혼자 사는 가구 ⑦ 기타()		
11. 거주지역	① 남동구 ()동 ② 인천광역시내 타 지역 ③ 타 시도		
11-1. 귀하의 거주 지역은 장애인이 살기 편리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남동구 거주 기간	_____ 년 _____ 개월 (남동구 거주자에 한함)		

21. 다음은 복지관의 전반적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체크(√)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① 복지관의 시설에 만족한다.					
②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만족한다.					
③ 복지관의 사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④ 복지관의 이미지는 긍정적이다.					
⑤ 나는 지속적으로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다.					
⑥ 나는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없다.					

22. 복지관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대로 기입해주세요.

- 1) 1순위 : (_____)
 2) 2순위 : (_____)
 3) 3순위 : (_____)

Ⅲ. 다음은 여가 및 사회참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23. 귀하는 외출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주 2~3회 ③ 주 1회 ④ 월 1~3회 ⑤ 연 10회 이내
 ⑥ 거의 없음 ⑦ 기타(_____)

24. 귀하가 주로 어떤 교통 수단을 이용해 외출을 하십니까?

- ① 일반버스 ② 저상버스 ③ 일반택시 ④ 장애인 콜택시
 ⑤ 지하철 ⑥ 자원봉사차량 ⑦ 도보(전동스쿠터, 휠체어)
 ⑧ 복지기관 무료 셔틀버스 ⑨ 기타(_____)

2016년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남동발간 2016-13

- 발행일 : 2016년 12월
- 발행인 : 서 현 정
- 편집인 : 윤 진 현
- 주 소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번길
-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 홈페이지 : www.ndjb.or.kr